

라틴아메리카의 생성과 확장

셋째 마당 발견의 시대

아메리카의 발견

❖ 콜롬버스가 서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 이슬람세력으로 인한 유럽인들의 동방진출 제약
- 이슬람 문명- 동서무역 중개로 막대한 이익 취득
- 스페인과 포르투갈 -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
=> 신항로 개발에 관심
- 포르투갈- 1488년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아프리카의 희망봉 항로 개척
=> 16세기 해외진출 포르투갈인 약 10만명 (전체인구 10%, 남자인구 35%)
- 스페인- 국토회복운동의 종료, 신항로 개척필요, 군사력의 진출,
새로운 땅의 기독교화 열망
=> 새로운 La Reconquista
- 유럽의 르네상스와 지동설
- 콜롬버스의 착각- 지구의 둘레를 실제보다 1/4에서 1/6로 작게 계산: 지구의 반지름은 약 400해리로서 시속 3노트로 항해하면 한달 이면 동방에 도착할 수 있다고 계산 (Santa María호 - 배수량 230톤, 시속 5-9노트)

발견의 시대

- 10세기경 바이킹들이 아메리카 발견
- 15세기경 중국인들의 아메리카 발견?
- 명나라 정화의 7차례 원정(1405-1433)
- 명 제2대 황제인 건문제에 대항, 황족 연왕의 반란 성공=> 3대 영락제로 즉위=> 건문제 시신 발견 못함=> 유언비어 원인 제공=> 정화 원정의 요인 중 하나
- 영락제=> 몽골, 베트남 정벌 (조선 압박), 인도양 지역에서 명의 위엄 과시 목적 (정화 파견 이유 중 하나)
- 60여척의 대형 함선과 100척 가량의 소함선으로 구성
- 명의 해상 봉쇄 정책: 북방에서의 이민족 위협, 내부 농민봉기, 환관세력의 몰락
- 이후 중국은 농업에 절대적 가치를 두는 고립주의로 전환
- 1603년 필리핀 화교 대학살 (2만5천명 거의 전원 몰살)
- 1639년 필리핀 화교 대학살 재발 (약 2만명 학살)

Santa Fe 협정

❖ 1492년 4월 17일 가톨릭 양왕(los Reyes Católicos)은 콜럼버스(Cristobal Colón)와 산타페 협정(Capitulación de Santa Fe) 체결:

1. 콜럼버스는 새로 발견되는 지역의 세습적 부왕(Virrey) 및 해군제독(Almirante)의 지위를 갖는다.
2. 새로 발견될 땅에서 나오는 총수입의 1/10과 모든 무역 거래에 1/8 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새로운 영토의 재판권을 갖는다.
4. 상기 세 항의 권리와 명예는 세습한다.

- 1492년 8월 3일- 세척의 범선(Santa María, Pinta, Niña) 출항 (선원 90명, 24m 미만의 소형배 => 정찰대의 성격)
- 1492년 10월 12일- 원주민들이 Guanahani라 부르는 San Salvador(오늘날의 바하마 군도에 있는 Watling) 상륙 (66일간의 항해) => Dia de la Raza(멕시코), Dia de la Resistencia Indigena(볼리비아)
- 그 후 Juana(오늘날의 Cuba)와 La isla Española(오늘날의 Dominica 공화국과 Haiti) 발견, Santa María호 파손
- 1493년 3월- 스페인 도착(Pinta호 포르투갈령의 아조레스 군도에서 파손, 니냐호만 귀환), 인디오 데려옴- 인간 논쟁 야기 (p. 152), 유럽인들의 열광과 환상
- ⇔ 선한 야만인(Buen Salvaje): 유토피아적 세계관 반영 (르네상스 시대 목가소설, 기사소설 유행)



자료출처: 본인



자료출처: 본인

Valladolid 논쟁(1550-1551)

❖ Juan Gines de Sepulveda:

1. 인디오들은 우상숭배라는 중죄 범함
2.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개념에 들어맞는 타고난 노예
(천성적으로 조야하고 열등한 존재)
3. 군사적 정복은 인디오들에게 가톨릭을 전도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
4. 그들을 정복함으로써 그들 중의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

❖ Bartolome de las Casas:

1. 인디오들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한 '야만인' 혹은 '타고난 노예' 개념에 맞지 않음
2. 이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무력 사용하지 않고 개종 시도해야 함
3. 인디오들이 '몸', '행위', '사물'에 대한 '소유권(dominium rerum)'을 가진 존재로 규정
4. 인디오들을 강제 지배할 것이 아니라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국왕의 신민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영예로 여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함=> Bartolome는 역설적으로 식민지배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 논리 제공
5. Bartolome는 인디오를 보호하기 위해서 흑인노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 토르데시야스(Tordesillas) 조약(1494년 6월 7일)

=> 지구를 양분

=> Madeira 군도, 아조레스섬과 Cabo Verde 섬을 축으로부터
서쪽 370리그(1100마일) 지점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분계선으로 정함

=> 동쪽:포르투갈, 서쪽:스페인

➤ 제2차 항해(1493년 9월)

=> 17척의 배, 2000명의 선원, 이주이민자 대거 포함

=> 신부, 군인, 상인, 농부, 장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 이주
(American Dream)

=> 인디오 포교 및 무역전진기지 건설, 금광발굴과 식민의 임무

=> Dominica에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식민지 Isabela 건설
(원주민들에 의해 파괴됨)

=> 현존하는 라틴아메리카 最古의 도시 Santo Domingo 건설(1496년 귀국)



자료출처: 본인



자료출처: 본인



자료출처: 본인

- 제3차 항해(1498년 5월)
 - => 깨어진 환상, 함대를 결성하는데 2년 소요,
선원 지원자 없어 죄수 포함시킴, 6척의 함대
 - => 그의 영토 Santo Domingo 통치 시작
 - => Venezuela 발견
 - => 이주민들의 반란=> 무정부 상태=> 국왕 개입
 - => 왕실관리 파견
 - => 콜럼버스 쇠사슬에 묶여 본국 송환(1500년)
- 1501년- 스페인, Nicolas de Ovando를 La isla Española의 새 행정관으로 임명(32척의 범선에 2500명의 이주민), 콜럼버스의 특권 사실상 상실됨
- 제4차 항해(1502년)
 - => Isabel 여왕의 콜럼버스 외면, 다 부서져 가는 배 4척 내줌
 - => Ovando, 콜럼버스의 La Española 체류 거부, 중미와 파나마 해협 탐험 (Jamaica 상륙 및 파나마 발견), 파나마 원주민의 습격으로 스페인 귀국
- 1506년 5월 21일- 콜럼버스, 스페인의 Valladolid에서 사망



자료출처: 본인